

# 제주 수산의 보전과 개발

이 영 돈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수산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연안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생물의 적응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산업 육성과 제주도민의 제주바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연안 수온은 1923년 수온측정 이래 현재는 평균수온 1.5℃도, 동계수온 2.0℃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수산물 생산량은 1960년 1만4천 톤 생산액 1억2천만 원에서 2018년 생산량 25만 톤 생산액 1조2천 1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어업인구는 1970년 85,230명에서 2018년 9,081명으로 1970년에 비해 10.7% 수준으로 89.3% 감소하고 있다. 해녀는 1970년 14,143 명에서 2018년 3,898 명으로 1970년에 비해 27.5%로 72.5% 감소하는 추세이다((사)제주학회 제50차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 제주전통수산업의 과제와 정책대안, 2019-홍성완)

해양의 수온 변화는 산업 활동에서 배출하는 물질과 인간의 주거생활환경 변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제주연안 수온과 환경변화도 제주도의 지역생활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연안에서 수산물은 어획량 증가에 따라 생산액 증가를 보임에도, 관련 산업 종사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잡는 어업에서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에 따른 기계 자동화, 기르는 양식업의 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녀의 감소는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자원생물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 감소와 여성의 사회활동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해녀의 인력자원 유지와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내 대학차원에서 해녀전문가 양성과정(2년)을 제안한다.

제주연안 해조류 어획량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0,000톤을 상회하다가 2010년에 접어들어 1,000톤 이하로 보고하고 있다(2019-홍성완). 육상 식물생태에서 보면 식물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현상이다.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해서 바다 속 생태변화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바다 숲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서 바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조장 조성, 어초 조성

사업, 썬벵이, 돌돔, 자바리, 전복, 오분자기 방류사업, 해조류 이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상의 경우 우리나라의 식목사업은 철저한 식목 관리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바다 식목일을 정해서 바다 숲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를 진행함에도 육상식목 사업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연안 바다의 지속적인 환경시스템 관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제주 섬을 중심으로 본다면 해안을 따라 형성된 취락구조와 도로, 하천정비, 그리고 토양 특성과 환경에 따른 작물생산과정에 비료관리, 농약관리 그리고 양식장과 축산 질병관리, 사람들의 생활 하·폐수, 도로 우수(雨水)관 등등 육상의 모든 산업과 생활의 폐수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 요소들이 연안 바다에서 해조류와 토착어종들이 서식하면서 번식하는 환경 수용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해조류의 식생변화, 토착어종의 감소원인 요소들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탐색과 생태 생리적으로 구명하기에 앞서서 기후변화로만 해석하려는 현실이 아쉽다.

생활양상 변화에 따라서 어선어업 구조도 갈치, 한치, 옥돔 등 어획을 통한 어업과 연근해 체험 관광레저 어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녀의 감소 현상은 안정적인 소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식어장의 전문 인력 감소원인도 유사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제주 수산업은 지역인력이 주체가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1차 산업 전문 인력의 감소현상은 산업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1차 산업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으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젊은 인력들도 1차 산업분야에 종사를 기피한다.

제주 지방정부와 대학들은 1차 산업 현장의 전문가 인력양성과 산업현장의 노동 임금과 생활환경개선 정책 등으로 제주에서 1차 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제주에서 1차 산업의 보전과 개발의 핵심은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가야한다. 1차 산업이 전문 인력을 유혹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한다.

제주의 산업구조는 대외 의존적인 형태가 강하므로 미래지향적인 제주도의 보전과 개발은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산업과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에 있다고 본다.